



세르비아는 지난 1990년 유고연방의 해체로 발생한 내전의 악재를 넘어 2009년 제25회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베오그라드 다뉴브 강변에 마련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정경기장 전경.



2009년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 대회 메인스타디움으로 쓰일 '프르비니츠베즈다(붉은 별)경기장. 5만5천석 규모로 지난 1991년 세계축구클럽챔피언 '파르티잔'의 홈 경기장이다.

■ 대회 유치 주역 시니샤 사무총장

“후보도시 시민들 열정 대회 유치 성공의 열쇠”

“2009년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는 세르비아를 유럽과 세계로 나아가갈 수 있게 하는 황금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 유치 주역인 시니샤 야츠니츠(43) 유니버시아드 베오그라드 2009컴퍼니 사무총장은 “2009년 대회는 유고연방의 종주국이었던 세르비아를 세계 무대에 다시 컴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재정담당 집행위원, 유럽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이기도 한 그는 FISU의 젊은 실력자로 지난 1986년 세르비아 '노비 사드' 체육대학 2학년때 '보즈보디나 대학스포츠연맹'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면서 FISU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집행위원까지 성장한 입지전적 인물로, 2011년 임기가 끝나는 조지 킬리안 연맹회장의 뒤를 잇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모두 참가해 봤는데, 한국의 재정력이 경기 운영 경험, 체육시설이면 광주도 무난히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가 FISU에 몸 담은 이후 참가한 8번의 하계대회, 9번의 동계대회 등을 통해 볼 때 광주는 2013년 대회 유치 경쟁에 뛰어난 도시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유력한 경쟁대상으로 러시아의 카잔과 캐나다의 에드먼턴을 꼽으면서 “유치 설명회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현지 실사를 나갔을 때 개최 후보도시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열정, 대회 시설 준비도 등이 유치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FISU 집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교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베오그라드는 그런 면에서 FISU의 의사 결정 구조를 경쟁도시에 비해靈活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9년엔 ‘하얀마루’ 베오그라드로 오십시오. 전쟁의 상흔을 깨끗하게 씻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 줄 것입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세계의 화약고 발칸에 ‘평화의 깃발’ 꽃다

〈제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④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상)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가 제25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기적이었다. 1990년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시작된 내전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얻은 값진 성과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회의상, 조지 킬리안 FISU회장은 “2009년 제25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가 뽑혔다”고 발표했다. 순간 회의장에서 온갖 박수가 터져나왔다. 10여년 넘게 연방 해체에 따른 내전에 시달린 국가의 수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데 대한 축하였다. 이날 베오그라드가 13표를 얻었고, 경쟁상대인 멕시코 몬테레이가 7표, 폴란드의 포즈난은 1표를 얻는데 그쳤다.

전쟁의 상흔 뒤 얻은 값진 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규정은 몇 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전쟁이나 선거로 정정(政情)이 불안한 나라는 가능한 대회 개최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FISU집행위원들이 보스니아 무슬림에 대한 ‘인종청소’로 악명이 높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대회 개최권을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전범 취급을 받던 나라의 수도가 개최권을 딴 것은 60년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로세비치의 실각이후 새롭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출발하려는 우리들의 충정이 집행위원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민간회사 ‘2009 컴퍼니’가 대회 주최

FISU집행위원이면서, 2009년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고 치러질 민간회사인 ‘유니버시아드 베오그라드 2009 컴퍼니’의 사무총장 시니샤 야츠니츠의 회고다.

그는 당시 세르비아체육부 차관인 알렉산드르 소스타, 베오그라드 시장 네다드 보그다노비츠 등과 함께 전쟁으로 희망을 잃은 조국을 일으켜세우려는 일념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기획했다. 이들의 희망은 지난 1987년 유고연방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꺾이졌다. 당시 자그레브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계기로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데다, 정정이 불안한 나라가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유니버시아드 다음엔 올림픽까지 개최한다는 꿈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경쟁도시와 비교할 때 정정이 불안하다는 것 외에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엔의 경제제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오그라드가 가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베오그라드측은 이에 따라 옛 유고연방의 수도로서 최근 15년간 치른 20차례의 국제대회 경험과 체육시설, 세르비아의 뛰어난 국제대회 성적 등을 앞세우고 집행위원들을 파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집행위원 중 한명인 시니샤 야츠니츠의 실력이 돋보였다. FISU내에서 조지 킬리안 회장의 직계로 분류되는 야츠니츠는 전쟁으로 실의에 빠진 조국을 도약달라고 20명의 집행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베오그라드측은 한편으로 정정불안에 대한 집행위원들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개최지로 결정되면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민간회사인 ‘유니버시아드 베오그라드 2009 컴퍼니’에서 치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세르비아 정부와 국가올림픽위원회 등의 지원 약속도 받아내 신뢰성을 높였다.

세르비아가 정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국제사회 복귀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수년째 노력해온 유럽연합 가입에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제사회 복귀 발판으로

축구선수 두 차례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알렉산드로 소스타 체육부차관은 “1985년 고베, 87년 자그레브에 참가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해 아쉬웠다”며 “2009년 대회 유치는 금메달 획득보다 더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에 세계 젊은이들의 체육축전이라는 ‘평화의 깃발’이 꽃핀 것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일가공인중개사
☎ (대)234-8216 헬 011-609-0896
(광주유치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총상도 대지 76평 5층건물 2억7,700만 원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68949.co.kr)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할
1. 지 역 : 광주 시내
2. 조 건 : 3~4단평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1. 지 역 : 영암 무안 하평군 내
2. 면 적 : 3~4단평
3. 조 건 : 차량진입이 가능한 밭이나 야산
4. 이용목적 : 밭 작물 재배
5. 가 격 : 상호 협의 후 결정
상가 건물 구매
광산구 유산동 주공아파트 앞, 대지304㎡(92평) 지하1층 지상6층 건물1160.19㎡(351평) 임대보증금 1억8천만 원 월450만원 매대가 8억 원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릉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물
주원동 5억 병원의원매매
46㎡ 전50P 자매출구식 입주가능
999원 빌딩 구매
총상도 대지 76평 5층건물 2억7,700만 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 (062) 236-2550
최고의 수익 물건 [공동투자] 하실분을 찾습니다. [50억 한도]
경매로 [재테크 성공하기] 위해서는
- 수수료만을 받지 않는 [고객이외] 유선/현금 실거래는 필수로 만나셔야 합니다.
-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익성 = 현금성 = 매매차익]
근린시설/원룸상업
대표이사 010-7570-7525
소 재 지 (울진개요)
동성동/원룸상업/대지16,287 529천 1억8700만
신안동/정사실/대지87,217 25억 9억